제2장. 형태부의 적기

제2항. 조선어의 글에서 쓰는 받침은 다음과 같다.

ㄱ 책(책이, 책을, 책에)
먹다(먹으니, 먹어, 먹지)

ㄳ 몫(몫이, 몫을, 몫에)

ㄴ 논(논이, 논을, 논에)
안다(안으니, 안아, 안지)

ㄵ 앉다(앉으니, 앉아, 앉지)

ㄶ 많다(많으니, 많아, 많지)
낟알(낟알이, 낟알을, 낟알에)

ㄷ 굳다(굳으니, 굳어, 굳지)
듣다(들으니, 들어, 듣지)

ㄹ 길(길이, 길을, 길에)
멀다(머니, 멀어, 멀지)

ㄺ 닭(닭이, 닭을, 닭에)
맑다(맑으니, 맑아, 맑지)

ㄻ 삶(삶이, 삶을, 삶에)
젊다(젊으니, 젊어, 젊지)

ㄼ 여덟(여덟이, 여덟을, 여덟에)
넓다(넓으니, 넓어, 넓지)

ㄵ 돐(돐이, 돐을, 돐에)

ㄾ 훑다(훑으니, 훑어, 훑지)

ㄿ 읊다(읊으니, 읊어, 읊지)

ㅀ 옳다(옳으니, 옳아, 옳지)

ㅁ 밤(밤이, 밤을, 밤에)
심다(심으니, 심어, 심지)

ㅂ 집(집이, 집을, 집에)
잡다(잡으니, 잡아, 잡지)

ㅄ 값(값이, 값을, 값에)
없다(없으니, 없어, 없지)

ㅅ 옷(옷이, 옷을, 옷에)
솟다(솟으니, 솟아, 솟지)

ㅇ 잇다(이으니, 이어, 잇지)
땅(땅이, 땅을, 땅에)

ㅈ 낮(낮이, 낮을, 낮에)
맞다(맞으니, 맞아, 맞지)

ㅊ 빛(빛이, 빛을, 빛에)
쫓다(쫓으니, 쫓아, 쫓지)

ㅋ 부엌(부엌이, 부엌을, 부엌에)

ㅌ 밭(밭이, 밭을, 밭에)

ㅍ 숲(숲이, 숲을, 숲에)
높다(높으니, 높아, 높지)

ㅎ 히읗(히읗이, 히읗을, 히읗에)
좋다(좋으니, 좋아, 좋지)

ㄲ 밖(밖이, 밖을, 밖에)
ㄲ 엮다(엮으니, 엮어, 엮지)
ㅆ 있다(있으니, 있어, 있지)

제3항. 받침 《ㄷ, ㅌ, ㅅ, ㅆ, ㅈ, ㅊ》 가운데서 어느 하나로 적어야 할 까닭이 없는것은 관습대로 《ㅅ》으로 적는다.

례: 무릇, 빗나가다, 사뭇, 숫돌, 첫째, 헛소리, 햇곡식, 얼핏, 읽으렷다

제4항.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자음은 혀옆소리가 아닌 경우 받침으로 적지 않는다.

	옳음	그름
례:	겨누다	견우다
	디디다	딛이다
	미덥다	믿업다
	메추리	멧추리
	비치다	빛이다
	소쿠리	속후리
	시키다	식히다
	지키다	직히다
	여기다	역이다

	옳음	그름
례:	기쁘다	깃브다
	바싹	밧삭
	부썩	붓석
	해쓱하다	햇슥하다
	아끼다	앗기다
	여쭈다	엿주다
	오빠	옵바
	우뚝	웃둑
	으뜸	웃듬

제5항. 한 형태부안의 두 모음사이에서 나는 혀옆소리는 《ㄹㄹ》로 적는다.

	옳음	그름
례:	걸레	걸네
	놀라다	놀나다
	벌레	벌네
	실룩실룩	실눅실눅
	빨래	빨내
	알락달락	알낙달낙
	얼른	얼는

제6항. 한 형태부안에서 받침 《ㄴ, ㄹ, ㅁ, ㅇ》 다음의 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그것을 된소리로 적는다.

	옳음	그름
례:	반짝반짝	반작반작
	걸써	걸서
	말씀	말슴
	벌써	벌서
	활짝	활작
	훨씬	훨신
	알뜰살뜰	알들살들
	옴짝달싹	옴작달삭
	뭉뚝하다	뭉둑하다.

그러나 토에서는 《ㄹ》 뒤에서 된소리가 나더라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.

	옳음	그름
례:	~ㄹ가	~ㄹ까
	~ㄹ수록	~ㄹ쑤록
	~ㄹ지라도	~ㄹ찌라도
	~올시다	~올씨다

제7항. 형태부의 소리가 줄어진 경우에는 준대로 적되 본래형태를 잘 파악할수 있도록 받침을 바로잡아 적는다.

	옳음	그름
례:	갖가지(가지가지)	갓가지
	갖고(가지고)	갓고
	기럭아(기러기야)	기러가
	딛고(디디고)	딧고
	엊저녁(어제저녁)	엇저녁
	온갖(온가지)	온갓